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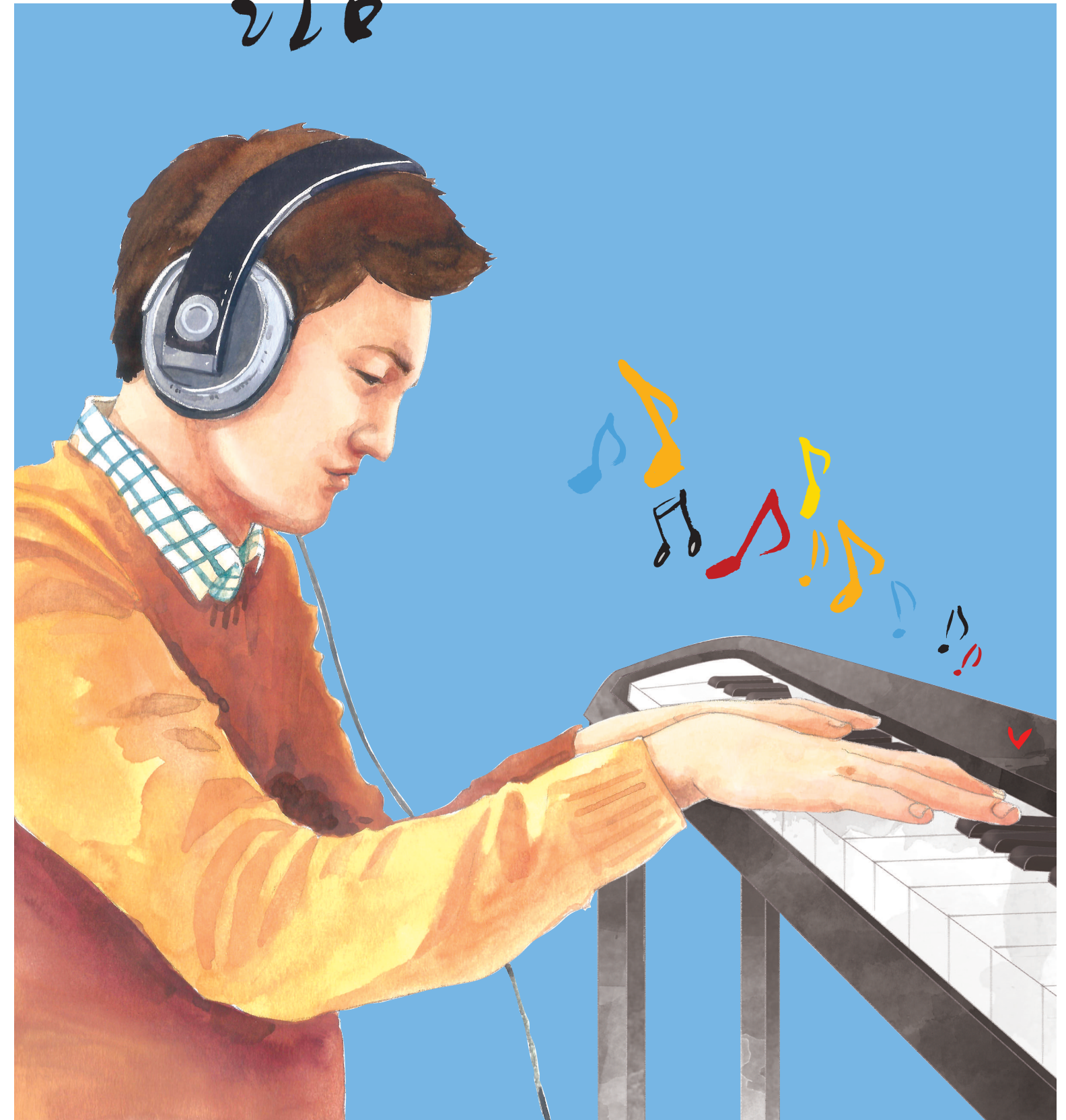
THANK YOU FOR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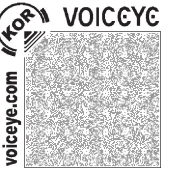
2015년 6월까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후원한 기업입니다.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5년 7월 31일 통권 120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151-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s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5+06
 May June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자신을 돕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다.

_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Contents



- 04 **포커스**
'국제장애인지원센터' 개소
- 06 **새소식 ①**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으로 오세요
- 07 **새소식 ②**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 새단장 OPEN
- 08 **희망나눔**
복지관 이용자_이가희 님
- 09 **사랑나눔**
나는 만큼 풍성해졌어요 '사랑나눔 바자회'
- 10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5월~6월 사업 현장
- 14 **문화산책**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를 만나다
- 16 **정보&이슈**
Design for All '손으로 읽는 시계'
- 18 **미리보기**
8, 9월 행사 안내
- 19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국제장애인지원센터 개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미경)은 6월 9일(화), 관악구 은천동에 위치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국제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은 사업소개, 축하, 축가, 헌판식,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동익 국회의원과 박준희 시의원,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서울시 지원으로 개소된 국제장애인지원센터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난 17년간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써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첫 걸음이기애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개소식에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전 세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비전 중 하나이다. 그 첫걸음을 올해 댈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에게 더 큰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국가는 총 7개국으로,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르칼팍스탄 공화국, 탄자니아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장애인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함께하며,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라오스에는 장애인 직업재활, 몽골에는 장애인 재활치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는 장애인 교육재활을 중심으로 지원 중입니다. 또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르칼팍스탄 공화국, 탄자니아에는 개안수술 및 의료장비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개도국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다

이를 위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과 5월에 거쳐 라오스,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직접 방문해 기초선조사를 펼친 후 장애인지원사업 관련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4년부터 필리핀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개안수술을 지원한 실로암안과병원(병원장 김선태 목사)과도 협력하여 필리핀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카르칼팍스탄 공화국과 탄자니아에 개안수술 및 실명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날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김선태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특별히 나는 해외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어갔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다. 국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애써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해외에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험이 나눠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제장애인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여, 더 많은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실로암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Let, IT, go!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으로 오세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6월,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을 오픈했습니다!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가능한 다양한 IT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방문하시면 음성으로 작동하거나 음성안내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스마트 가전기기들을 볼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와 점자도서, 확대도서와 같은 대체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한 시각장애인들의 근무환경 역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어떤 방식으로 IT제품을 활용하는 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을 방문해보세요. 아울러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따뜻한’ 기능을 지닌 스마트 가전기기를 체험해보시면서, 모두에게 편리한 IT제품들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에도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체험 가능합니다. 체험존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5층에 위치해있으며, 원활한 체험존 안내를 위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02-880-0541번으로 연락주세요.

전시 제품

최첨단 스마트 가전기기
음성제어 에어컨, 스마트TV, 스마트NFC지원 세탁기/광파오븐, 음성안내 로봇청소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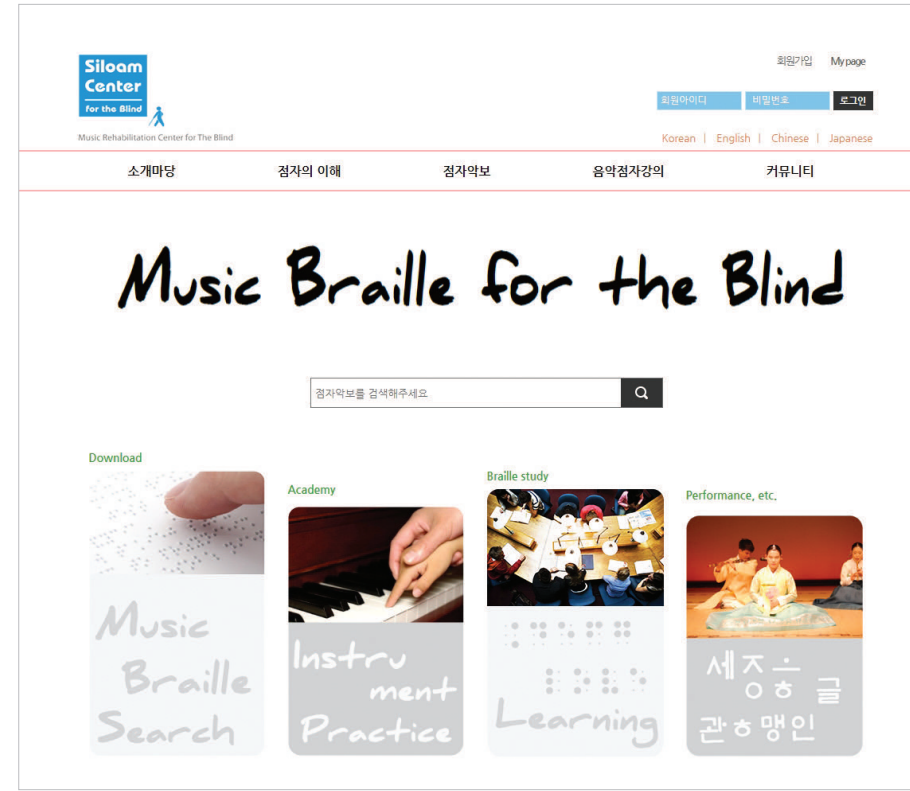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U2), 독서확대기(E-bot 프로, 비자오북, 스노우), 디지털플레이어(책마루 EZ, 리니오포켓), OCR(리드이지무브), 점자프린터, 스마트 폰, 태블릿 등

시각장애인 대체도서 및 생활용구
점자도서, 확대도서, 전자도서, 촉각도서, 시각장애인용 각종 생활용구

*본 사업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만지다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 새단장 OPEN



구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8분 음표	128분 음표	::	::	::	::	::	::
2분 음표	32분 음표	::	::	::	::	::	::
4분 음표	64분 음표	::	::	::	::	::	::
운음표	16분 음표	::	::	::	::	::	::
256분 음표	::	::	::	::	::	::	::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한 후 오픈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2년부터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점자악보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해왔는데, 지난 6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점자악보를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하여 재오픈했습니다.

새로워진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먼저, 점자악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음악점자 음성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1,200여 곡에 달하는 점자악보를 전세계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악보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점자악보 제작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밖에도 점자악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간편검색 기능을 갖추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기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실, 점자악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라면, 더욱이 음악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꿈을 꾸는 분들이라면 점자악보의 필요성을 매순간 실감할 것입니다. 글을 모르고는 문학을 논할 수 없듯, 악보 없이는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재활센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악보 제작과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전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재활센터 홈페이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www.musicbraille.org
문의
02.880.0674

희망은 가슴으로 보는 것



중학교 2학년 때 RP(명악색소변색증) 판정을 받은 이가희 님. 주변에서는 맹학교 진학을 권했지만 그녀는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할 수 없어서였죠. 어린 마음에 친구들과 다른 모습이 꼭 틀린 것만 같아서, 자주 넘어지고 친구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아이로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병명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의 갈등과 방황은 그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훈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 후, 좋아하는 음악을 배우면서 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더 힘들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 뒤늦게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게 됐죠. 시각장애인 등록을 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을 다니게 된 것도 최근 2년 사이의 일이에요.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니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점자는 물론 점자악보도 몰랐고, 컴퓨터 화면낭독 프로그램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점자부터 배웠어요.

올해 초부터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역교정사 양성교육, 시각장애인 정보화강사 양성교육, 피아노교실, 점자악보교실에 참여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려울 줄 알았던 점자가 재밌더라고요. 그 덕분에 얼마 전 국어 점역교정사 자격증도 취득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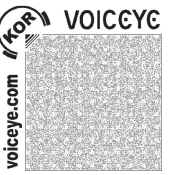
1년 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다보니 제 안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시각장애인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안 보여도 잘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손으로 글을 읽고, 악보를 보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희망이 되었어요.

받은 사랑, 돌려주는 삶 살고 싶어요

지금은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꿈은 CCM 가수입니다. 노래를 배우다보니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교실에서 다양한 반주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나의 곡이 반주법을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의 곡들로 변하는 걸 보면서 피아노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어요. 반주가 좀 익숙해지면, 미디작곡도 배울 예정이에요. 피아노, 점자악보, 미디작곡교실을 잘 마치면 원하는 곡을 한 곡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웃음)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지 실감하고 있어요. 점자악보를 보는 게 익숙지 않고, 반주도 미숙한데 제 불편함을 미리 아시고 섬세하게 잘 알려주는 피아노 강사님을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홀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아직은 제가 큰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제가 만든 음악과 노래를 통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요. 그들에게 '희망은 눈이 아닌 가슴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만큼 풍성해졌어요 '사랑나눔 바자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의 물품지원비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6월에도 다양한 물품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따뜻한 나눔과 사랑의 손길이 가득했던 상반기 바자회의 면면을 소개합니다.

후원자(업체)	후원물품
영원무역	이웃도어
세아상역	아동의류
성은기/최우중	참치
정영길	의류
삼성증권	채소,사과즙
해피빈	타올
굿센스	생활잡화
글송이	아동도서
스킨톡	화장품
대농마트	라면
선우어묵	햇바
와유바유협동조합	배즙
부름프리마켓	접시, 액세서리 등

봉사단체
코웨이 환경가전지원팀, 동작관악 적십자 봉사단, 서울예술대학교 봉사동아리 '심봉사'

사랑은 바자회를 타고

6월 5일,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 앞이 시끌벅적합니다.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는 '사랑나눔 바자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곳은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바자회 곳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후원자분들의 도움으로 채워집니다. 올해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의류, 식료품,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가 판매되었으며, 카페모아 음료와 베이커리도 할인 판매되어 바자회 내내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프리마켓이 열려 수제향초, 수제초콜릿, 과일청, 도예 식기류 등이 판매되었고, 네일아트숍도 운영돼 바자회가 더욱 풍성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꺼이 후원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자회에 찾아오셔서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반기 사랑나눔 바자회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봉천역 4번 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만큼 채워지는 따뜻한 마음 공식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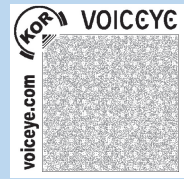
01



02



06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우리 가족 파워업2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 _ 5월 1~2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시각장애인 자녀와 아빠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대부도펜션시티, 유리섬박물관 등을 방문해 갯벌체험, 미니운동회와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본 캠프는 서울시 사회복지자금(장애인복지계정)지원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02** Healing 가족여행 _ 5월 4~5일
시각장애인 가족들은 나비 축제가 열리는 함평으로 가족여행을 떠나 나비 날리기, 앵무새 먹이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03** 위메프, 슈피겐 '나눔DAY 프로모션' 수익금 전달식 _ 5월 6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위메프와 슈피겐으로부터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수익금을 전달받았으며, 수익금 전액으로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15명의 개인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 04** 1차 시각장애인 인연만들기 '친한친구' _ 5월 9일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따뜻한 봄날, 혜화동 대학로 일대에서 다함께 연극을 보고 식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 05** 맘파워 프로젝트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책놀이' _ 5월 9일
엄마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책놀이 1, 2차 수업에서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하기, 친구 얼굴 그리기, 부모님 얼굴 표현하기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06** 재가시각장애인 야외나들이 _ 5월 13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재가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 이천시의 딸기농장과 곤지암 도자공원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KT&G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관악구 내 재가복지를 담당하는 8개의 기관이 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 07** 서울맹학교 이동 직업평가 _ 5월 12~15일
서울맹학교를 방문하여 중등부, 이료재활반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능력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08** 학부모 독서코칭교실 _ 5월 14일
'Story가 있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은 재밌다) 저자인 김소라 강사를 모시고 '나는 아이에게 어떤 엄마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09**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 _ 5월 13일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점역교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음악점역교정사 직종 설명 및 자격증 취득 안내, 점자정보 제작과정,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 10**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한센인의 날 축하 공연 _ 5월 15일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의 개원 99주년과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청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식전 축하공연 무대에 올라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 11** 실로암 연극교실 _ 3월 11일~
올해 상반기에 시작된 실로암 연극교실에서는 전문 연극 강사의 진행 아래 총 11명의 이용자들이 자기표현, 발성 연습, 감성 순화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 12** 2015년 제2차 진로탐색훈련 _ 5월 30일
고용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헤어 제품 및 도구 사용법을 설명하고 각자에게 어울리는 제품을 이용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실습시간을 가졌습니다.



03



04



0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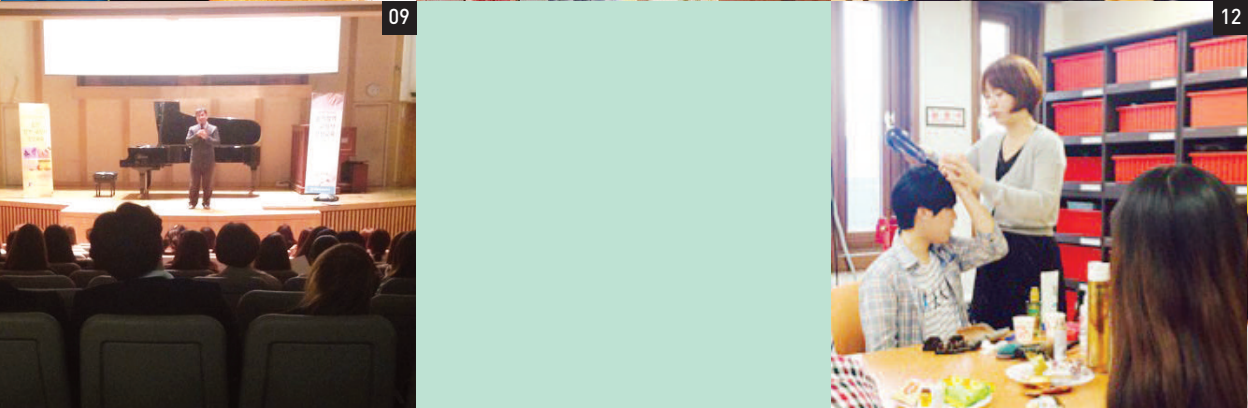


07

08



11



09

1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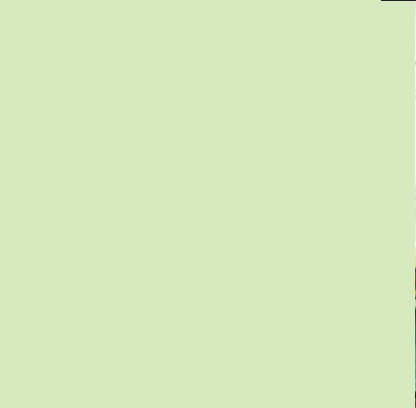
13



13



14



17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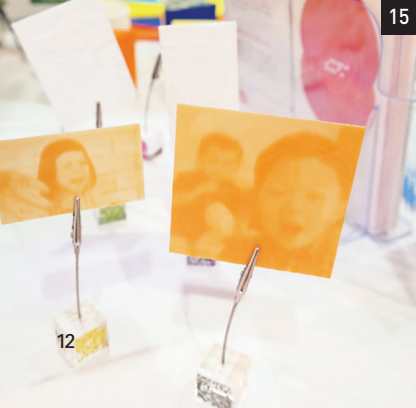
19



16



20



15



15



21

- 13 2015년 1,2차 순회이료심화교육_6월 4~5일, 18~19일**
지립생활기술훈련의 일환으로 1차 순회이료심화교육이 부산안마사회 내의 부산안마수련원에서 진행됐으며, 2차 교육은 경북안마사회의 안마수련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 14 2015년 방충망 설치사업_6월 8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12가정을 대상으로 2015년 방충망 설치사업이 진행됐습니다.
- 15 설리번학습지원센터, '아트앤라이프'에 참가_6월 3~7일**
서울 양재아트센터에서 열린 아트앤라이프 전시에 참가해 설리번 아이들의 얼굴을 3D프린팅한 '얼굴꽃', 종로지역 '3D촉지도' 그리고 3D로 다양한 패턴을 형성화한 '한글자음점자'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16 2015 상반기 사랑나눔 바자회 실시_6월 5일**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이웃도어 및 의류, 아동도서, 생활용품, 농산물, 먹거리, 프리마켓팅 물품, 카페모아 베이커리 등이 판매되었으며, 수익금은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물품지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 17 2015 시각장애학생 음악캠프 'Feel Harmony' 오디션_6월 20일**
'Feel Harmony' 오디션에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학생들이 참가해 서로의 악기실력을 뽐냈으며 실기 및 이론테스트, 면접 등이 진행됐습니다.
- 18 도란도란 낭독회_6월 22일**
한국학생자도서관은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책누나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도란도란 낭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시각장애아동들은 두 개의 동화를 읽고 협동심과 배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9 시각장애인 IT 생활체험존 운영_6월~**
정보기지원팀은 2015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을 운영합니다. 본 체험존에는 스마트사전기,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 및 대체도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 20 김치국 교수와 함께 한 음악점역사 역량강화교육_6월 25일**
미국 버클리음대의 첫 시각장애인인 김치국 교수를 초빙해 음악점역사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21 낭독봉사, 연중**
시각장애인들이 다양한 정보와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신문, 잡지, 도서 등을 낭독하여 녹음하는 자원봉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
최연소 교수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를 만나다

버클리 음대, 제2의 설리번 '김치국'

얼마 전, 버클리 음대 최연소 교수로 초빙된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의 이야기가 방송을 타면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심장수술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은 김치국 교수는 음악이 주는 매력에 빠져 16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클리 음대에서 작곡을, 뉴욕주립대에서 음악제작테크놀로지를 전공했는데요. 그 후 28세의 나이로 버클리 음대 최연소 교수로 채용되어 세상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김치국 교수를 '시각장애 음악영재에게 일반 학생과 같은 수준의 음악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자신의 강의를 들으며 몰려들었던 7개국 20여 명의 시각장애 음악영재들을 가르쳐 일반인 못지않은 수준으로 키워냈습니다. 작곡, 편곡, 녹음, 믹싱 등 그에게 실용음악의 전 과정을 배우고 졸업한 학생들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탁월한 연주자나 미디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버클리 음대 로저 브라운 총장은 김 교수를 '제 2의 설리번'에 비유합니다.

사회의 좁은 박스(Box)를 함께 넓혀가요

김치국 교수의 이야기는 버클리 음대를 넘어 세계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재활센터는 지난 6월, 김 교수를 초빙해 음악점역교정사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인 티파니와 함께 복지관을 찾은 김 교수는 미국에서의 삶과 인생 여정에 대한 이야기 풀어놓고, 복지관 음악점역교정사들이 준비한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깊은 공감을 자아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합니다.

Q 시각장애인으로서 버클리음대 교수가 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순간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웃음) 다들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이 좋았고,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 역시 어렵긴 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한 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좋은 분들이 항상 계셨다는 겁니다. 저를 강하게 키워주신 부모님,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준 누나들, 아내 티파니까지. 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요.

Q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교육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그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패가 익숙한 친구들에게 성공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죠. 현재 학생들에게 작곡과 편곡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힘주어 하는 말은 '성공하는 뮤지션이 아닌 훌륭한 뮤지션이 되라' 입니다. 사실 제가 교수로 채용되면서 버클리음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커리큘럼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러한 변화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Q 교수님이 교육하실 때 음악점자악보를 얼마나 활용하시나요?

A 사실 학생들의 점자악보 활용도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보통은 외워서 연주를 많이 하는데요. 점자악보는 시각장애인 음악인들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점자악보를 주고 그대로 녹음하는 것을 시험문제로 내는 등 학생들에게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만약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고 싶나요?”
자신을 위해 평생 애쓴 부모의 주름진 얼굴이나, 미국인 간호학 박사로 4년 전 결혼한, 사랑하는 부인 티파니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악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연주하고 싶어요.” (한겨레신문 인터뷰 중에서)



Q 음악을 공부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자신의 부족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장애는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인이라는 '박스'를 만들고 그 구역 안에 들지 못하면 삶의 낙오자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좁은 박스의 범위를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곡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며 음악점역사들과의 시간을 마무리한 김 교수. 그의 말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좁은 박스를 조금씩 넓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Design for All

‘손으로 읽는 시계’

지난해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패션시계로 착용할 수 있는 시계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바로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고안된 ‘브래들리(Bradley)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유용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한다.



(사진출처: EONE TIME)

시계는 반드시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브래들리 시계 개발자 한국인 김형수 씨. 그는 미 MIT 유학 시절인 2011년부터 시각장애인용 시계를 구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동급생이 음성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강의에 방해가 될까봐 자꾸 그에게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시계를 만들었지만 큰 호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그 후 여러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시각장애인용’이라는 수식어를 빼고, 누구나 갖고 싶은 보편적인 제품을 만들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계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만지는 시계, 브래들리는 조용한 장소에서도 시간 확인이 편하며, 시침과 분침의 구슬이 자석으로 연결되어 있어 손으로 구슬을 움직이더라도 시간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모두를 위한’ 기능과 디자인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비장애인이든 손으로 만져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시계를 쳐다보는 것이 실례가 되는 장소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혁신적 디자인을 인정받아 작년 런던디자인박물관이 주는 ‘올해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출신 벤처기업인이 시계는 눈으로 보는 것이란 고정관념을 깨뜨린 혁신적 제품을 내놓았다’는 내용으로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 반드시 눈으로 봐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품의 가치를 알려주는 한 구절 카피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지닌 제품들이 세상에 나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상품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잠깐!

본 제품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880.0542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 음악점역 · 교정사 양성교육

음악점역 · 교정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음악 전공자 및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점역교육을 실시합니다.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일 시 : 2015년 9월 14일(월)~11월 20일(금)
- 문 의 : 02-880-0671 효명음악팀

외국어회화교실 - 프랑스어회화교실

국제화시대 시각장애인의 다양한 외국어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교실 외 프랑스어회화교실도 추가로 개설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장 소 : 복지관 내 외국어교육실
- 일 시 : 2015년 9월~2015년 12월(평일 오후 2시간, 주 1회)
- 문 의 : 02-880-0645 디지털도서관

2015 복콘서트

<당신은 드림워커입니까>의 저자 권동희 작가를 초청하여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주제로 복콘서트를 진행합니다.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지하 강당
- 일 시 : 2015년 9월 5일(토) 오후 1시
- 문 의 : 02-880-0644 디지털도서관

점역 · 교정사 시험대비 점자교육

점역 · 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교육을 진행합니다.

- 대 상 : 점역 · 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받으려 하는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 해당업무종사자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내 교육실
- 일 시 : 2015년 8월 4일(화)~10월 16일(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 이 용 료 : 10,000원
- 문 의 : 02-880-0633 점역팀

2015년 하반기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건강향상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 소 : 복지관 체육관 및 야외 인근 공원 등
- 모 집 : 2015년 8월 10일(월)~21일(금)
- 일 시 : 2015년 8월 24일(월)~11월 27일(금)
- 문 의 : 02-880-0830~5 문화체육지원센터

2015년 산악중주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1:1 매칭 후 산악중주에 참여함으로써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장 소 : 외연도 일대
- 일 시 : 2015년 9월 중
- 이 용 료 : 30,000원
- 문 의 : 02-880-0835 문화체육지원센터

독(讀)에 빠지다-도서전시

독서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도서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자 테마 도서를 전자, 점자, 녹음, 확대 등의 다양한 대체자료로 제작하여 전시, 제공합니다.

- 대 상 : 복지관 1층 열람실을 방문한 시각장애인
- 장 소 : 실로암 카페 열람실(복지관 1층)
-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10월 5일(월)
- 이 용 료 : 무료
- 문 의 : 02-880-0638 점역팀

2015 시각장애학생 'Feel Harmony' 음악회 초청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음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음악캠프 'Feel Harmony'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 높은 연주회가 펼쳐질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8월 7일(금) 오후 4시
- 장 소 : 힐스테이트홀(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14-1)
- 문 의 : 02-880-0680~4 음악교육팀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 'Let, IT, go'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하시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스마트 가전기기 등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연중
- 장 소 : 복지관 5층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
- 대 상 : 서울시민
- 문 의 : 02-880-0541 정보기기지원팀

음악재활센터 점자악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점자악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점자악보 제작의뢰도 가능하오니 홈페이지 가입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usicbraille.org (네이버 검색창에서 '점자악보'로 검색)

- 이 용 료 : 무료
- 대 상 : 점자악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 문 의 : 02-880-0674 효명음악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CMS 정기자동이체 신청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5월	14,624,200	4,605,000	1,972,710	4,161,195	25,363,105
6월	32,545,227	305,826	2,937,266	1,631,648	37,419,967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희원 고선용 고선화 고지후 광정훈 광현용 권승혜 권정홍 권정희 김경국 김경애 김경지 김계성 김광훈 김규남 김은하 김기순 김기영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명아 김무는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식 김민정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아 김선주 김선하 김성아 김성자 김성진 김성찬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세영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숙현 김양수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우도 김원봉 김은실 김찬덕 김재민 김재영 김재현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태의 김현도 김현정 김혜인 김호남 김호정 나민형 나병택 나서휘 남기윤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정아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찬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삼 박미랑 박민규 박상도 박선영 박세근 박세희 박술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정복 박종원 박지영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종석 배지혜 백순복 봉하중 서성교 서옥화 서원호 서의승 서희경 성지영 성지혜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은숙 송은정 송제웅 신덕수 신동선 신선화 신성만 신영석 신종현 신혜경 신홍연 심권섭 심재민 심재숙 안연광 양관동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염리라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한나 우재연 유금옥 유남주 유미현 유보영 유지영 윤라라 윤대현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진국 윤화영 이광성 이규성 이길원 이동형 이동훈 이로서 이루미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설한 이세희 이 송 이예성 이예일 이옥희 이요한 이운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응무 이인애 이재웅 이재은 이재희 이정아 이정원 이정민 이정춘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원 이진용 이진중 이진형 이지훈 이찬신 이창진 이창호 이종호 이태섭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현숙 이해현 이화정 임명숙 임은성 임종재 장석철 장수진 장선희 장운경 장은경 전영숙 전정자 정갑수 정근우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성민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지현 정지혜 정태준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은일 조은하 조진만 주재은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윤옥 최재석 최중철 최진수 최찬삼 최태선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성희 한숙자 한순식 한영실 한재경 한재용 함순식 함요한 함주영 함지영 홍권용 홍성현 홍예진 황소영 황순화 환정수 황호영 굿센스 글송이 디디아이엔씨 렌탈스타 무학교회 미니스톱(봉천역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삼성증권 서울동노회연저도회연합회 세플러코리아 신용보증기금 영원무역 와유바우협동조합 인텔 평광교회 피부를말하다 SM엔터테인먼트

개인수술 후원

김애경 서인선 이상훈 정인영 정항상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슈피겐코리아

실로암요양원 후원

권해진 김광희 김동희 김말년 김명아 김무경 김민혜 김병숙 김복희 김영선 김은철 김정숙 김태연 김태용 김형도 김호지 명옥선 박옥련 박은애 박주희 서문섭 성옥순 신성만 안정임 양희영 윤찬호 이금선 이봉희 이수경 이숙경 이순희 이영태 이주호 이춘자 임규선 장혜숙 정해용 조미경 조아라 조영순 조행금 지정규 차대수 최영훈 최우진 한명희 한재근 한재홍 함은창 함지영 함지우 함현식 꼬꼬요 남원추어탕 두드림수타짜짱 미소가 석천가든 신한-후원-김 실로암안과병원 오구쌀피자 온달명가 우리은행 의정부부대찌개 지열엠세미콘 (주) 착한한우 청하동태 피자스_클럽 하나로마트 해피빈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금옥연 김경진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서진 김성훈 김아름 김애경 김유빈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하연 노현기 맹석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양미나 유은분 윤재훈 이도건 이동희 이민정 이상정 이상표 이유진 이윤아 이창현 이하나 이현철 영 임 임영희 전영옥 정대영 정정자 정종일 조경자 조행금 최동미 최상규 하미진 허승희 황윤희 통일교회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